

# 장성군, 식품로봇 산업 도전장... '푸드테크 산업 육성 업무협약'

전남도·지스트·농협·(주)더본코리아·(주)유에이로보틱스  
김한중 군수 "식품로봇연구지원센터 장성군 설립에 최선"

장성군이 식품로봇 산업 선도에 나선다. 군은 20일 장성군청 상황실에서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성군과 △전라남도 △광주과학기술원 △농협 중앙회 장성군지부 △(주)더본코리아 △(주)유에이로보틱스가 손을 맞잡았다. '푸드테크 산업'은 식품의 생산·유통·마케팅 전반에 정보통신, 바이오 기술,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결합한 신산업을 말한다. '푸드테크'는 식품과 기술의 합성어다.

이번 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공모사업' 신청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공모사업은 △식품로봇 △식물성 대체식품 △푸드업사이클링 3개 부문으로 나뉜다. 선정된 지역에는 지원센터 구축에 개소당 3년간 10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장성군은 식품 생산, 유통 등의 과정에 로봇을 도입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식품로봇' 분야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장성군과 협약을 맺은 광주과학기술원(GIST, 지스트)은 세계적인 역량을 갖춘 연구 중심대학이다. 미래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연구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주)유에이로보틱스는 치료로봇, 협동로봇 구동 시스템 등에 관한 특허를 보유한 '딥테크(기술혁신)' 기업이다. (주)더본코리아는 방송인이자 요리연구가인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이다. 더본의 산업개발원 장성센터 개원을 앞두고 있다. 협약기관 및 기업들은 식품로봇연구지원센터 장성군 유치를 목표로 한 산업기반 조성과 연구를 공동 추진한다. 식품로봇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과 산업현장 적용에도 힘을 모은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와 첨단기술 발전으로 세계 푸드테크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국가 식품로봇연구지원센터가 장성군에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성=김수권기자



## 곡성군, 라오스 계절근로자 30명 입국 '농가지원 시작'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데 중점

곡성군은 22일, 곡성군민회관 참여마당에서 라오스 므앙타파발 출신 계절근로자 30명을 위해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환영행사에서는 이상철 곡성군수, 윤영규 곡성군의회 의장, 군의원, NH농협은행 곡성군 지부장, 곡성 농협장 등 60여 명이 참석해 새롭게 도착한 계절근로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참석자들은 환영 인사와 격려의 말을 했으며 이후에는 근로 준수사항과 진드기 감염 예방 교육을 진행해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번 교류는 곡성군과 곡성농협이 지난 1월 초라오스 현지에서 라오스 고용노동복지부와 맺은 계절근로자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근로자들은 입국 직후 곡성군보건의료원에서 건강



김진과 마약검사를 신속하게 완료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등록과 보험 가입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쳐 즉시 농가 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췄다. 곡성군의 이번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기존의 장기 고용 중심의 계절 근로 프로그램과 달리, 단기 노동력이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

로 근로자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딸기, 매론, 감자, 블루베리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일손 부족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곡성과 라오스 므앙타파발이 공동의 발전을 이루는 새로운 모델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절근로자들이 곡성군민과 다름없이 안전하고 따뜻한 분위기에 서 무사히 근로를 마치고 귀국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곡성농협(061-363-6618)으로 최소 5일 전까지 전화 신청을 해야 하고, 1일 이용료 100,000원(중식비 포함)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인 곡성농협에 선입금하면 근로자를 배치받을 수 있다. 곡성=양해영기자

## 나주시, 중장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무료 지원

51~70세 여성농업인, 근골격계·심혈관계·폐활량 등 10개 항목 검진

나주시가 고된 농작업으로 각종 질병·질환 위험에 노출된 중장년층 여성농업인을 위한 특수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한다. 나주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사업 선정을 통해 짝수 연도에 출생한 51~70세 여성농업인 4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특수건강검진비 22만원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농약 중독, 근골격계질환, 심혈관계, 폐활량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을 검사해 조기 진단하고 전문의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신청은 이번 달 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검진의료기관은 빛가람종합병원으로 검진 비용 전액(국비50%·도비12%·시비38%)을 지원받는다. 나주=송준표기자

## 구례군, 장기·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제도 운영

구례군은 올해 1월부터 '장기·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생명 나눔에 대한 인식 제고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새로운 생명을 잇는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본인인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조직 등을 기증하

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생전에 기관에 등록하는 것으로서, 실제 기증은 뇌사 또는 사후에 유가족의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인체조직 기증이 많지 않아 이식재의 약 95.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1명의 뇌사 장기기증은 최대 9명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기자

## 담양군 수북면, 노인일자리 참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담양군 수북면(면장 송선례)은 지난 23일 수북면 복지회관에서 노인일자리 참여자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 및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이동 시 차량통행 확인, 작업도구 이용 시 안전거리 확보 등 개인 안전수칙과 건강관리 중심으로 진행됐다. 수북면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85명은 지난 1월 15일 시작, 오는 12월까지 도로 및 강변 쓰레기 줍기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 가꾸기에 힘을 모은다. 담양=박종영기자

## 화순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추진

화순군은 26일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3월 4일부터 15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

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3종이다. 또한 ▲화순군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 등이 있어야 한다. 화순=박순철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